

## 종부세를 때리니 지자체가 아프다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 '비상'  
광주 609억·전남 2719억 줄어  
시·군 기초단체는 더욱 심각  
지방소멸 대응 재정 대책 시급

최근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를 대폭 감면한 이후 지자체에 들어가는 부동산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후 광주시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1787억원) 대비 609억원 줄어든 1178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7억, 서구 112억원, 남구 135억원, 북구 132억원, 광산구 102억원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전남지역도 2022년 대비 지난해 271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지자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억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흥군이 137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해남군이 133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

인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시·군·구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국세인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단체에 교부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가 커진다.

현재 행안부는 종부세 폐지 관련 논의에 대한 정치권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 마련 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가 지역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폐지 시 재정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자치단체의 근심이 깊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 경우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성호(민주·경기동두천시당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액 4조9601억원 중 24.8%(1조2294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5.2%(3조7307억원)는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전체 종부세의 49.5%인 2조3000여억원이 걷혔는데 서울시가 받은 부동산교부액은 4750억원이었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의 약 80%가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올해 광주의 부동산교부세 확보액은 총 979억 4000만원이다. 구별로 동구 187억원, 서구 188억원, 남구 199억원, 북구 220억원, 광산구 183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종부세가 폐지되면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확보한 금액만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걱정을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일반 재원인 만큼 종부세 폐지 시 내년 광주 자치구 약 980억원의 일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감면에도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는 만큼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미애(민주·비례) 국회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먹구름 가득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광주와 전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20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산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당장 비가 올듯이 먹구름에 싸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장마 내일 시작 ... 광주·전남 30~80mm 비

제주도에 강한 비를 내린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22일부터 광주·전남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

장맛비가 태양열에 달아오른 지표면을 식혀 한 낮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이 22일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어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해상에서 형성된 장마전선이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밀려 올라온 탓에 강한 비를 동반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남해안에서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비는 22일 낮부터 밤 사이에 집중되겠다. 23일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누그러져, 장마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남해해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다.

21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무덥겠다. 장맛비가 내리는 22일에는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21~23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에 분포하겠다.

장맛비가 그치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수준을

보이겠지만,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27일부터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해 광주·전남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7월 첫째주와 넷째주는 평년에 비해 기온은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40%에 달하겠다. 또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더 덥고, 기압골로 인한 비가 평년보다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번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 하수도 및 우수관 등의 물 역류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정부 "북러 군사협력 규탄...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 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에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합뉴스

지역 건설업계 '취창'... 레미콘발 위기 오나 ▶6면

북스 - '문명' '폐번치현' ▶14·15면

KIA 현재와 미래 동시에 잡는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